

대학생들 학자금대출 못갚아 빚쟁이 전략

광주·전남 소송·가압류 4년새 7.5배 급증 장기 연체→신용불량→취업 장애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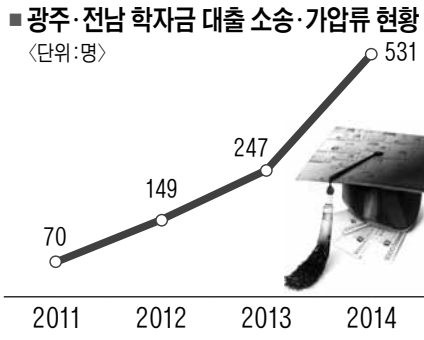
“어려운 형편에도 대학교를 고집해서 진학했고, 만만치 않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까지 함께 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상산도 못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취업준비로 너무 정신없는 생활을 했고, 문득 정신을 차리니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이게 직장을 구하는데 방해될까 두렵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제 때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학업을 위해 빌린 돈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만들고, 청년들의 취업에 되레 장애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한국장학재단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1년 70명에서 2012년 149명, 2013년 247명, 2014년 53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4년 사이 7.5배가 급증한 셈이다.

법적 조치 종류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가압류 39건, 소송 49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학생들이 받은 학자금대출액은 지난



2010년 1198억원(3만9134명)에서 지난해 1204억원(4만5596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한 명당 평균 264만원을 대출한 셈이다. 현재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최대 4000만원이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약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거나 만기가 되는 해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돼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원인을 늘어나는 취업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자칫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압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취업난이 계속될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안 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하는 이유는 미상환 금액을 추심하기보다는 5년인 학자금 대출 소멸시효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출업자에 수익 금품 받은 혐의 전남경찰청 소속 총경 구속영장

前 부하직원 업자는 구속

경찰이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수출업자로부터 수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남경찰청 소속 고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직 경찰관인 수출업자 정모(37)씨로부터 자신이 설립한 무역회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정보를 얻는 대가로 수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전남지방경찰청 김모(57)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김 총경에게 금품을 건넨 정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도피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경은 전남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5월과 전남경찰청 간부로 있던 2013년 2월, 광주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에 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경은 김 총경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정씨의 정황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경은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형성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가 국외에서 추방당하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조사를 받는다 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김 총경을 체포했다.

김 총경은 현재 정씨 계좌에 거래된 내역은 자신의 부인이 투자한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무역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남관 순천지청 차장감사는 “현재 김 총경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 구체적인 뇌물수수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수은 누출 남영전구 ‘화학사고 조치 명령’

영산강환경청 화학사고 규정

‘수은 불법 매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하남산단 조명업체 (주)남영전구에 대해 ‘화학사고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남영전구 수은 누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러나 화학사고 조치 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은 지난해 4월 형광등 제조 시설을 철거하면서 설비 등에 남아있던 수은을 지하실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거작업에 나선 일용직 근로자들에 게 수은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4명이 산업재해 처리 승인을 받는 등 집단 수은 중독 사태를 불러왔다. 설비 철거 과정에서 맹독성 유독물질인 수은이 토양, 대기 등 주변 환경으로 누출돼 인근 사업장 근로자, 인근 주민 70여명도 건강검진을 받는

화학사고 조치명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조치명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수립,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등 그 피해가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한편, 남영전구는 사태가 불거진 지 1개월여가 지난 23일에서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김철주 대표가 직접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영전구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공장 수은 누출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수은 누출이 지역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와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장애인체육회 선수 의료 검진 조선태병원 의료봉사단원들이 19일 광주시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광주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 검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검찰 ‘김신혜 재심’ 항고 여부 오늘 결정

법원이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여·38)씨가 청구한 재심을 지난 18일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의 항고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의 즉각 항고 시일은 20일까지로 이날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이 항고 하면 김씨는 광주교범에서 다시 ‘재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9일 “이번 재심 결정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검찰의 항고 여부도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고 여부는 시한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남지청은 1심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3일 내에 광주교범

에 항고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재심이 확정돼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검찰이 항고했는데 광주교범에서 기각되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김신혜 사건’의 진실 규명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는다.

그러나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타이어 빼들려 판매한 금호타이어 직원들 수사

광주지방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계약직 직원들이 수익원 상당의 타이어를 빼들려 거래 업체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직원은 판매용 타이어를 시험용으로 빼들려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시종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일부 타이어가 불법 반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들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찰 부실수사 성추행범 몰린 60대 검찰 재수사로 풀려나

○경찰의 부실 수사로 무고한 60대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범이 붙잡혔다.

○19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기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문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문씨는 지난 8월7일께 광주 남구의 한 포장

마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박모(여·7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박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

○처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를 문씨가 아닌 강모(68)씨라고 지목, 자칫 강씨가 성추행범의 오명을 뒤집어 쓸뻔 했는데, 강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자 검찰이 재수사해 진범을 밝혀냈고. /박정욱기자 jwpark@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